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일자리 공고, 3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
- WSJ: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 Bloomberg: 내년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글로벌 금리 인하 주도
- CNNBusiness: 이번 겨울도 난방비가 비싸다

### [미국 금융]

- WSJ: 파월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시사에 달려 추가 상승 가능성

### [미국 대선]

- WSJ: 오늘 밤에 부통령 후보들 토론회 열린다

### [물류]

- WSJ: 항만 파업 시작됐다... 메인에서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파업 장기화되면 공급망에 영향 줄 수 있어”
- Bloomberg: 항만 고용주들, 막판에 봉급 50% 인상안 제시
- WSJ: 선박사 Maersk “항만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비용과 지연 경고”

### [오일]

- WSJ: 공급 증가 전망에 유가 하락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블랙록 CEO “인프라 호황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부른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높은 가격 때문에 자동차 판매 제자리
- WSJ: CVS, 회사에 대한 전략적 검토 실시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Openings Climb to Three-Month High, Exceeding Forecasts**  
미 일자리 공고, 3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

- 8월에 미 일자리 공고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해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다른 지표들과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연방 노동부의 일자리 오픈과 노동 이동 설문 보고서(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에 따르면 7월에 취업이 가능했던 일자리 공고 건수가 7백71만개에서 8월에 8백40만개로 증가했다. 주로 건축 분야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 반면에 채용률은 3.3% 감소해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낮았다 (팬데믹 기간은 제외). 특히 소매업과 운송, 창고직에서 큰 감소를 보였다.
- 한편 ISM의 오늘 화요일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제조업 분야의 활동이 9월의 경우 6개월 연속 둔화됐다.



Bloomberg 기사

**WSJ: Fed’s Powell Says Rate Cuts Can Sustain Soft Landing, but Sees No Need to Rush**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 연준의 파월 의장은 안정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20년 만의 최고치인 고금리를 계속 인하하겠지만 지난 회의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가진 컨퍼런스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견조한 상황”이라며 “연준 관리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인 만큼 위원회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 올해 11월과 12월에 각각 0.25%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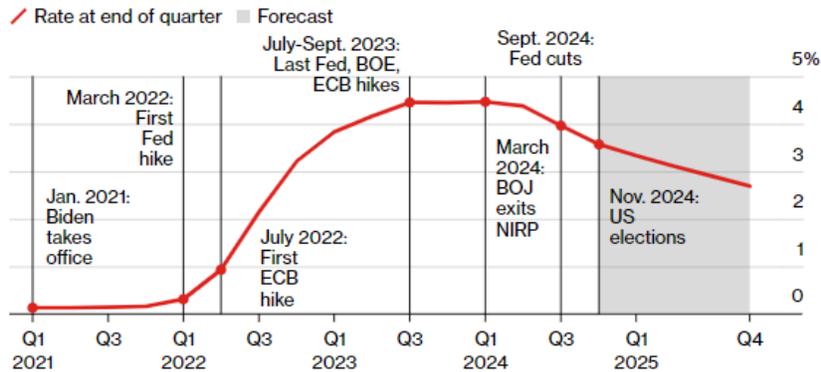
WSJ 기사

## Bloomberg: Fed Drives Global Push to Cut Rates Despite Questions Over 2025

### 내년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글로벌 금리 인하 주도

-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근 약화되는 가운데 내년도의 경제 불확실성이 다가오면서 차용 비용을 낮추는 전환으로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상황이다.
- 미국이 금리 인하로 다른 선진국들의 인하 정책에 합류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물가 우려가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바뀌고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밝히고 있다.
- 선진국들의 차용 비용의 총계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거의 40베이시스 포인트 감소했으며 내년까지 그 금액은 두배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노르웨이와 호주 등도 금리 인하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G7의 대부분은 금리를 내리고 있다. 광범위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 Advanced Economy Policy Rate Tracker



Source: Bloomberg Economics

Bloomberg 기사

## CNNBusiness: Heating your home will cost more again this winter

### 이번 겨울도 난방비가 비싸다

- 전미 에너지 지원 책임자 협회(National Energy Assistance Directo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가정 난방비가 평균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겨울철 전기 요금은 13.6% 상승한 1,208달러가 될 것이며, 특히 서부 지역은 전력망 유지 및 업그레이드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판(propane) 난방비는 7.3% 인상된 1,442달러로, 천연가스 요금은 7.2% 인상된 644달러로 예상된다. 석유 난방비는 6.1% 인상된 1,963달러로 예상된다.
- 협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요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약 2,100만 가구가 6월 전기 요금으로 135억 달러를 연체했다. 작년 같은 기

간에는 2,040만 가구가 약 125억 달러를 연체했었다. 협회의 Mark Wolfe 총괄 디렉터는 “힘든 여름이 가고, 또 힘든 겨울이 왔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 [미국 금융]

#### **WSJ: Dollar Could Rise Further After Powell Signals Gradual Easing** 파월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시사에 달러 추가 상승 가능성

- 파월이 어제 월요일 금리를 점차 작은 규모로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한 후에 달러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금융사 ING는 밝혔다,
- ING의 분석가인 Francesco Pesole는 파월의 ‘특이할 정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금리 인하율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불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LSEG Refinitiv 데이터에 따르면 미 머니마켓이 금년 말까지 총 70베이스 포인트 이상의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연준이 올해 남은 두차례 회의 중에 한번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베팅하고 있다.
- 그는 또한 가까운 시일에 달러 강세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XY 달러 지수는 한 주간 가장 높은 101.121로 0.3% 상승했다.

WSJ 기사

### [미국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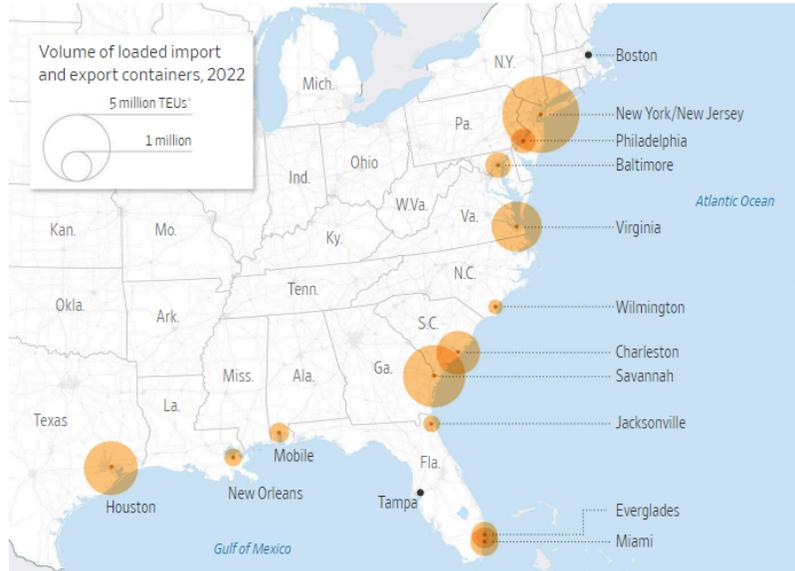
#### **WSJ: What to Watch in Tuesday's Vance-Walz Debate** 오늘 밤에 부통령 후보들 토론회 열린다

- 뉴욕시에 있는 CBS가 저녁 9시에 토론회를 가진다. 대통령 후보자 간의 토론회는 6천7백만명이 시청했는데 시청자 수는 그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는 5천8백만명이 시청했었다.
- 시작 발언은 없는 반면 마무리 발언은 2분씩 주어진다. 후보자들에게는 펜과 종이 패드와 물병이 주어지지만 미리 쓰여진 노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 민주당 후보 왈츠는 오랜 의회 경험과 두차례의 주지사 캠페인을 통해 토론 경험이 많은 반면에 공화당의 밴스는 지난 2022년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큰 관심을 받은 이후 전국적인 미디어의 경험이 많은 편이다.

WSJ 기사

### [물류]

Ports on the East and Gulf Coasts



\*TEU stands for 'twenty-foot equivalent unit,' a standard measure for shipping containers. Comparable volume data for the ports of Boston and Tampa not available.  
 Source: Transportation Department

## WSJ: Dockworkers Launch Strike at Ports From Maine to Texas 항만 파업 시작됐다... 메인에서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 미 항만 노무자들이 화요일 시작되는 자정에 메인주에서 텍사스주까지 많은 항만에서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를 5주 앞두고 미국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 동부와 걸프만 항만 총 4만5천명의 노무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ILA의 회원들은 임금 계약이 만료된 직후 미 수출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화물 터미널에서 피켓을 들고 파업에 돌입했다.
- 막판에 고용주들은 향후 6년간 50% 임금 인상을 제시했지만(당초 제안은 40% 인상) 노조 측은 향후 6년간 7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간당 현재의 39불에서 69불이 되는 것이다.
- 현재 백악관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매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견딜 수 있지만 파업이 오래되면 가격 상승과 제품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WSJ 기사

## Bloomberg: Fed’s Goolsbee Says Prolonged Ports Strike Poses Supply Risks

시카고 연준 총재, “파업 장기화되면 공급망에 영향 줄 수 있어”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항만 파업이 지속될 경우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월요일 Fox Business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망에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와 비즈니스 비용이 상승하고 제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관련 여파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그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두 해 이상 걸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로 금리를 낮추려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Employers Boost Dockworker Wage Offer in Bid to Keep Ports Open** 항만 고용주들, 막판에 봉급 50% 인상안 제시

- 항만 고용주 측인 US Maritime Alliance는 항만 노조 측과 협상을 재개하고 동부 및 걸프만 항만 파업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임금을 거의 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 기관은 터미널 운영 업체들과 선박 회사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성명서에 마지막 24시간동안 임금 관련된 메시지를 노조 측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 백악관 관리들은 월요일에 고용주 측과 만나 속히 공정하게 교착상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었다.
- 현재 고용주 측과 노조 측은 임금 이슈 외에 항만 시설 자동화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WSJ: Maersk Cautions on Costs And Delays From U.S. Dockworkers Strike** 선박사 Maersk “항만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비용과 지연 경고”

- A.P. Moller-Maersk가 미국 동부 항만 및 걸프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화물 이동 지연, 비용 증가와 같은 물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업 측은 항만 고용주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화요일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파업 측은 6년 동안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 수입 물량의 약 절반이 동부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단 며칠의 파업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ydbank 수석 분석가 Mikkel Emil Jensen은 기업들이 성수기를 앞당겨 물건을 쌓아뒀지만, 파업이 몇 주 동안 지속되면 2025년 초부터 재고가 부족해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Jefferies의 분석가들은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오일]

### WSJ: Oil Falls as Increased Supply Prospects Offset Middle East Fears 공급 증가 전망에 유가 하락

- 중동의 공급 차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OPEC+의 공급 증가 전망에 유가가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1.20달러로 0.7%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67.63달러로 0.8% 하락했다.
- OPEC+는 12월부터 점진적으로 공급을 늘릴 예정이라 내년에는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중국은 9월 공장 활동이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와 수요 부진이 우려된다. 분석가들은 시장이 중동 긴장에 무감각한데, 이란이 더 개입하면 공급 중단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 Bloomberg: Fink Sees Boom in Infrastructure Fueling Global Economic Growth 블랙록 CEO “인프라 호황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부른다”

- BlackRock의 CEO Larry Fink는 “인프라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오늘날 전 세계를 둘러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탈탄소화, 디지털화,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점점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 Fink는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자본이 있어 정부 지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넓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 지난달 BlackRock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해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0억 달러의 사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Auto Sales Idling as Prices Remain High 높은 가격 때문에 자동차 판매 제자리

- 신차 가격 상승과 높은 대출 비용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업계는 3분기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약 1천57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까지 5년 연속 최소 1천7백만 대 이상의 차량 판매가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 J.D. Power에 따르면 9월 미국의 평균 신차 가격은 4만4천467 달러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들이 많은 할인을 제공하면서 작년보다 거의 3% 하락한 가격이지만, 2019년 말 약 3만4천600 달러보다는 많이 올랐다.
- 소비자들은 리스로 전환하거나 소형차와 SUV 같은 저렴한 방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Cox에 따르면 리스는 올해 3분기 신차 판매의 25%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20%보다 증가했다. Cox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Charlie Chasebrough는 “사람들이 정말 작은 차량을 원하진 않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 WSJ: CVS Board Conducts Strategic Review of Company CVS, 회사에 대한 전략적 검토 실시

- CVS Health가 회사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실시했다. 여기엔 그룹 해체 옵션도 포함됐다. 아직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니며, 비즈니스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CVS는 건강 및 미용 제품 소매업체로 시작해 약국, 건강 보험사, 의료 클리닉을 산하에 둔 헬스케어 대기업이다. 작년 말부터 여러 차례 실적 전망치를 낮췄고, 올해 주가는 약 20% 하락했다.
- CVS가 어려워진 이유는 산하의 건강 보험사인 Aetna가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의 민간 버전 메디케어 사업 때문이다. Aetna는 올해 노인들을 목표로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해 수십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의료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연방 규제가 메디케어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WSJ 기사

## [보고서]

### 美연준 의장 "美 경제 견고"...단계적 금리인하 시사 파월 의장 연설..."FOMC, 인하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아"

## 금융시장 11월 빅컷 기대 급감...미 국채금리 상승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견고한 상태라며,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시사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궤도 위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며 단계적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정책 입장을 시사, 시장의 추가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 기대를 낮췄다.

파월 의장은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설과 그에 앞서 배포한 서면 문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제는 견고한 상태에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